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노동 수요 견조... 3월 18만4천개 민간 일자리 늘어
- Bloomberg: 3월 미 서비스 성장 둔화... 투입 비용도 4년 만에 최저
- Yahoo Finance: 애틀란타 연방은행총재, “올해 4분기까지 금리 인하 보류해야”
- Bloomberg: “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면 70년대 실수 반복한다”

#### [미국 금융]

- Bloomberg: 서비스 증가세 둔화 지표 등에 미 주식 반등

#### [부동산]

- Bloomberg: 무디스, “미 사무실 공실률 20% 근접... 사상 최고치”
- CNBC: 주간 모기지 수요 정체 ... 높은 금리 탓

#### [원유]

- Bloomberg: OPEC+, 유가 배럴당 90달러 근접... 공급 감축 유지

#### [인공지능]

- Bloomberg: AI 관련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랠리는 불투명

#### [미중 경제]

- 중국 언론, 일본제철과의 거래 관련 “미국은 보호주의자”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아마존, ‘Just Walk Out’ 서비스 중단
- CNBC: 미 식품의약국, AI로 패혈증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승인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Companies Added 184,000 Jobs in March, ADP Data Show**

#### **미 노동 수요 견조... 3월 18만4천개 민간 일자리 늘어**

- 3월 민간 기업의 일자리 채용이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며, 일부 직종은 임금 상승이 크게 증가해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ADP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3월 민간 일자리가 18만4천개가 늘어나 2월의 상향 조정 수치인 15만5천개보다 높았다. 당초 예상치인 15만개보다 많았다.
- 일자리를 바꾼 근로자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해 임금이 10% 증가해 지난 7월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일터를 바꾸지 않은 근로자는 5.1% 임금이 상승해 2월과 비슷했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Services Growth Cools as Price Gauge Drops to Four-Year Low****3월 미 서비스 성장 둔화... 투입 비용도 4년 만에 최저**

- 3월 들어 미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두 달째 연속 둔화되었고 상품과 서비스에 지불하는 가격인 투입 비용 지표도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 공급자 관리 협회(ISM)의 서비스 관련 종합지수가 1.2 포인트 내린 51.4를 기록해 공급업체의 납품 지수가 사상 최대치로 떨어졌다. 수치 50 이상은 확장을 말한다. 이번 수치는 블룸버그의 예상 수치보다 낮았다.
- 자재와 서비스에 부과하는 가격 지수인 투입 지용은 5포인트 이상 낮아 53.4를 기록해 지난 2020년 3월 이래 가장 낮았다.

## Bloomberg 기사

**Yahoo Finance: Bostic says Fed should hold off on interest rate cut until Q4****애틀란타 연방은행총재, “올해 4분기까지 금리 인하 보류해야”**

- “올해 말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 시도를 보류해야 한다”
- 애틀란타 라페엘 보스틱 연방은행총재는 수요일 이같이 말하며 차입비용인 금리를 올해는 한 차례만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현재 인플레이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GDP와 고용이 계속 강하고 인플레이 둔화가 늦어진다면 올해 4분기에나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Yahoo Finance 기사

**Bloomberg: Fed Risks 70's Mistake If It Cuts Rates Too Soon, T. Rowe Says****“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면 70년대 실수 반복한다”**

- T. Rowe Price Group의 글로벌 수석 투자 책임자인 Eric Veiel은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릴 경우 신뢰성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 그는 “파월 의장은 본인이 70년 발생한 시절의 학생이었다고 말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지금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준은 70년대에 인플레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정책을 완화시켰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Stocks Rebound After Data With Eyes on Powell: Markets Wrap**

##### 서비스 증가세 둔화 지표 등에 미 주식 반등

-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실시하겠다는 투자자들의 베팅에 별 변화가 없는 가운데 미 증시는 오전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 트레이더들이 파월 연준 의장의 향후 조치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있는 가운데, 미 서비스 부분의 증가세 둔화로 이틀간의 증시 하락세는 중단됐다. 증시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장 초반의 보고서 발표로 약세를 보였었다.
-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024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손실을 줄였다.

Bloomberg 기사

### [부동산]

#### **Bloomberg: Office Vacancy Rate Nears 20% to Set Fresh Record, Moody's Says**

##### 무디스, “미 사무실 공실률 20% 근접... 사상 최고치”

-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 사무실 공실률이 올해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공실률은 19.8%. 무디사에 따르면 공실률이 작년 4분기의 19.6%보다 상승했다. 사무실 임대를 한 회사들은 하이브리드로 사이즈를 계속 줄이고 있다. 연준의 높은 금리 인상 사이클도 상업용 부동산에 타격을 주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오피스의 힘든 상황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로 ‘완전 침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Bloomberg 기사

#### **CNBC: Weekly mortgage demand remains stalled, as interest rates stay stubbornly high**

##### 주간 모기지 수요 정체 ... 높은 금리 탓

- 지난주 모기지율이 변동하지 않았다. 2주 연속 모기지 수요도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다.
- 잠재 구매자들은 지나친 비용과 낮은 매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들이 현재의 높은 이자율로 재융자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총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0.6% 감소하며 주춤하는 모습이다.
- MBA economist인 Joel Kan은 “모기지율 상승이 주택 구입에 계속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구매 건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FHA 구매는 한 주 동안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 [원유]

### Bloomberg: OPEC+ Sticks With Supply Cuts While Oil Nears \$90 a Barrel OPEC+, 유가 배럴당 90달러 근접... 공급 감축 유지

- OPEC+가 올해 상반기 동안 석유 공급 감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을 압박하고 잠재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 OPEC+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 패널들은 정책 변경을 제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6월 말까지 하루 2백만 배럴의 생산량 제한이 계속될 것임을 뜻한다.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OPEC+는 감산을 유지하여 2분기에도 세계 석유 시장을 약간의 적자 상태로 유지할 태세이다. JPMorgan Chase는 공급 부족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Bloomberg 기사

## [인공지능]

### Bloomberg: An AI-Rally for Software Makers Will Demand Investor Patience

#### AI 관련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랠리는 불투명

-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로 트레이더들이 Dell Technologies와 Micron Technology를 비롯한 하드웨어 제조사를 매수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믿음에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엔비디아를 비롯한 칩 제조사와 기타 AI 관련 업체들의 성장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해 16% 상승했다. 반면, Adobe와 Salesforce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지수는 올해 4%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 Truist Advisory Services의 주식 전략 담당 디렉터 Scott Yuschak는 “수익 성장이 가시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기업이 AI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아직 실제 사례가 부족하고 고객들이 얼마를 지불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 [미중 경제]

#### **Bloomberg: Chinese Media Calls US ‘Protectionist’ Over Nippon Steel Deal**

##### **중국 언론, 일본제철과의 거래 관련 “미국은 보호주의자”**

- 중국 관영 매체가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업체와의 합병 시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경제 세계화에 큰 위협”이라고 발표했다.
- 지난 화요일 China Daily는 사설에서 미국이 대외 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 정책 및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사는 일본제철이 고용 및 투자 안정을 약속했음에도, 미국 관리들이 합병에 반대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시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US Steel이 국내 기업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며, 거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선거 연도가 아니었다면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았을 사안에 대통령이 개입한 이례적 성명이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Amazon to Remove ‘Just Walk Out’ Checkout Technology at U.S. Grocery Stores**

##### **아마존, ‘Just Walk Out’ 서비스 중단**

- 아마존이 미국 식료품점에서 사용되던 ‘Just Walk Out’ 서비스를 중단한다. ‘Just Walk Out’ 시스템은 캐시가 없는 매장에서 스마트폰 어플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몇 년 전 처음 발표됐을 때 기술 혁신을 가져온 시스템이다.
- 아마존 프레스시 매장은 대신 ‘Dash Carts’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쇼핑하는 동안 카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스캔하는 시스템이다. 일부 프레스시 매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Dash Carts’ 기술은 소비자와 캐시의 상호작용이 필요 없는 구조이다.
- 아마존은 셀프 계산 키오스크 및 계산 보조 인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 기사

## CNBC: FDA authorizes Prenosis software as first AI tool that can diagnose sepsis

### 미 식품의약국, AI로 패혈증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승인

- 수요일 의료기술회사 Prenosis가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패혈증 진단 도구가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 해당 기업은 ‘패혈증 면역점수(Sepsis ImmunoScore)’라 불리는 도구가 체온, 심박수, 세포 수 등 22가지의 변수를 사용하여 환자의 패혈증 위험 수치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진들은 각 변수를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했지만, 해당 도구를 사용하면 한 번에 모든 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
- Prenosis가 패혈증 진단 AI 도구로 FDA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기업이지만, 여러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솔루션을 발표해 왔다.

CNBC 기사

[보고서]

##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美뉴욕증시 약세 마감...다우 1%↓

미국채 10년물 4.4%로 4개월만에 최고...국제유가 5개월만에 최고  
국제 금값 사상 최초 온스당 2,300달러 돌파 눈앞에 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 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약세로 마감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격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선을 눈앞에 뒀고, 국제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6.61포인트 (-1.00%) 내린 39,170.24에 마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mailto:office@kocham.ccsend.com)